

		보 도 자 료			
		배포 일시	2015. 6. 24(수) 총 12매(본문 7매, 붙임 5매)		
담당 부서	항만운영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안호, 사무관 김세희, 주무관 이광호 • ☎ (044) 200-5770, 5773, 5774		
	항만물류기획과		• 과장 이수호, 사무관 김정화, 직원 김호석 • ☎ (044) 200-5750, 5753, 5759		
보 도 일 시		2015년 6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4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‘15년 5월 전국 항만물동량, 총 1억 1천841만 톤 처리

‘컨’ 물동량, 전년 동월 대비 3.3% 증가한 2,180천 TEU 처리

《 총 괄 》

- 해양수산부(장관 유기준)는 2015년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 1천841만 톤으로 전년 동월(1억 1천759만 톤) 대비 0.7% 증가*(컨테이너 3.2% 증가, 비컨테이너 0.4% 감소)하였고, 이 중 수출입화물은 9천843만 톤, 연안화물은 1천998만 톤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.

* 톤 단위 기준임, <붙임4> 2015년 5월 항만별 컨/비컨 화물처리실적 참조

《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(’15.5월) 》

(단위 : 천 톤, %)

구 분	’12.5월	’13.5월	’14.5월	최근 3개월			’15.5월
				’15.2월	’15.3월	’15.4월	
총물동량	115,631	111,487	117,593	107,908	119,628	117,682	118,406
전년동월 대비	3.1	-3.6	5.5	2.8	-5.1	-0.6	0.7
수 출 입	94,740	90,811	97,667	92,226	100,972	97,912	98,430
연 안	20,891	20,676	19,926	15,682	18,656	19,770	19,976

- 증가세를 보인 주요항만은 인천항, 목포항, 동해·묵호항 등이며,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.2%, 14.2%, 7.1%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, 대산항, 포항항, 광양항 등은 수출화물과 연안화물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.5%, 14.2%, 7.1% 감소하였다.

《 주요 항만별 물동량('15.5월) 》

(단위: 천 톤, %)

구 분	부산항	광양항	울산항	인천항	평택·당진항	대산항	포항항	동해·묵호항	목포항	기타
총물동량	30,003	19,973	16,963	13,651	8,545	5,019	4,994	2,608	2,035	14,616
전년 대비	4.5	-7.1	-0.8	16.2	-7.1	-16.5	-14.2	7.1	14.2	10.0

- 품목별로 보면 목재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18.6% 증가하였고, 화공품, 자동차 등도 전년 대비 각각 11.8%, 10.5%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철재, 광석 등은 각각 12.5%, 11.4% 감소하였다.

《 주요 품목별 물동량('15.5월) 》

(단위: 천 톤, %)

품목별	유류	유연탄	광석	철재	자동차	기계류	모래	화공품	시멘트	목재	기타
총물동량	33,048	10,445	9,580	7,848	7,466	7,049	5,401	5,316	3,548	2,048	26,658
전년 대비	4.5	4.6	-11.4	-12.5	10.5	-7.9	4.4	11.8	1.8	18.6	0.0

《 비컨테이너 화물 》

-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총 8천216만 톤으로 전년 동월(8천246만 톤) 대비 0.4% 감소하였고, 인천항, 동해·묵호항 등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그 외 항만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.
- 인천항은 영흥화력발전소 발전기(2기) 추가로 인한 유연탄 수입 증가와 SK종합화학의 신규공장 증설에 따른 유류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체 물동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
 - * 유류(2,137천 톤→3,116, 45.8% ↑), 유연탄(854천 톤→1,385, 62.2% ↑)
 - 동해·묵호항은 강원, 충북지역의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원료인 유연탄과 무연탄의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6.7%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
 - * 유연탄(217천 톤→296, 36.4% ↑), 무연탄(89천 톤→153, 71.9% ↑)
 - 반면, 대산항의 경우 주요 품목인 유류의 재고 관리 등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17.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 - * 유류(2,994천 톤→2,185, 27.0% ↓)
 - 포항항은 국내외 철강산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철재의 수출입 감소, 철재 생산의 부원료인 유연탄과 무연탄의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.7%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.
 - * 철재(1,304천 톤→896, 31.3% ↓), 유연탄(1,337천 톤→1,160, 13.2% ↓), 무연탄(234천 톤→56, 76.1% ↓)

《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('15.5월) 》

(단위: 천 톤, %)

구 분	계	울산항	광양항	인천항	평택·당진항	포항항	대산항	동해·묵호항	기타
총물동량	82,164	16,502	16,500	10,290	7,828	4,921	4,912	2,599	18,613
전년 대비	-0.4	-0.8	-9.2	24.3	-7.7	-12.7	-17.0	6.7	10.2

□ 품목별로 보면 양곡, 기계류, 유연탄 등의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.6%, 15.9%, 4.6% 증가한 반면, 철재, 광석 등은 각각 18.4%, 12.0% 감소하였다.

○ 기계류의 경우, 마산항 주변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기계류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5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
* 마산항 수출(169천 톤→263, 55.6%↑)

○ 유연탄은 발전용 수요 증가(인천 영흥화력, 하동화력)와 평택·당진항의 제철용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6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.

* 인천항 수입(854천 톤→1,385, 62.2%↑), 하동항 수입(972천 톤→1,116, 14.8%↑), 평택·당진항 수입(522천 톤→671, 28.5%↑)

○ 반면, 철재와 광석의 경우 국내외 철강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포항의 포스코 용광로 보수 및 파이넥스 1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.4%, 12.0% 감소하였다.

* (철재) 포항항 수출입(1,304천 톤→896, 31.3%↓), 광양항 수출입(1,042천 톤→708, 32.1%↓), (광석) 광양항 수입(3,166천 톤→1,484, 53.1%↓)

《 품목별 비컨테이너 물동량('15.5월) 》

(단위: 천 톤, %)

품목별	유류	광석	유연탄	자동차	철재	모래	시멘트	화공품	양곡	기계류	기타
총물동량	32,955	9,200	10,444	5,498	6,332	5,397	3,541	3,045	770	689	4,294
전년 대비	4.4	-12.0	4.6	4.0	-18.4	4.4	1.8	3.4	36.6	15.9	-8.0

《 컨테이너 화물 》

- 한편,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월(2,112천 TEU)에 비해 3.3% 증가한 2,180천 TEU*를 기록하였다.

* 수출입화물 1,267천 TEU(0.8% ↑), 환적화물 896(6.5% ↑), 연안화물 17(28.6% ↑)

《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》

(단위 : 천 TEU, %)

구 분	'13. 5월	'14. 5월	'14.1~5월	최근 3개월			'15.1~5월
				'15.3월	'15.4월	'15.5월	
총 물 동 량	2,005	2,112	10,129	2,192	2,172	2,180	10,640
전년동기 대비	△0.8	5.3	5.0	3.6	2.7	3.3	5.0
수출입	1,203	1,257	5,950	1,287	1,265	1,267	6,098
환 적	790	842	4,100	880	886	896	4,425
연 안	12	13	79	25	21	17	116

- 항만별로 살펴보면, 부산항 전체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3.7% 증가한 1,641천 TEU를 기록하여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.

- 이 중 수출입은 1.7% 증가한 806천 TEU를, 환적은 Maersk, MSC, 한진해운 등 대형 원양선사의 꾸준한 물동량 상승세에 힘입어 5.6% 증가한 836천 TEU를 처리하며 전체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였다.
- 광양항은 전년 동월 대비 8.6% 증가한 220천 TEU를 기록하였고, 이 중 수출입은 2.6% 증가한 161천 TEU를, 환적은 Maersk, 한진해운 등 주요 선사의 증가세에 힘입어 29.3% 증가한 59천 TEU를 처리하였다.

- 인천항의 전체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2.8% 감소한 201천 TEU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홍콩, 유럽과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*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.

* 홍콩(7천 TEU, 22.0%↓), 유럽(4천 TEU, 35.3%↓)

《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 》

(단위 : 천 TEU, %)

구 분	'13. 5월	'14. 5월	'14.1~5월	최근 3개월			'15.1~5월
				'15.3월	'15.4월	'15.5월	
부산항	1,511	1,583	7,622	1,684	1,642	1,641(3.7)	8,109(6.4)
광양항	191	202	1,010	202	205	220(8.6)	985(△2.5)
인천항	189	206	925	177	200	201(△2.8)	939(1.5)

- 한편, '15년 5월 누계,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(8,470만TEU) 대비 2.9% 증가한 8,714만TEU를 기록하였다.

- 상하이항은 1,494만TEU(5.3%↑)를 처리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, 싱가포르항은 누계 기준 올해 첫 마이너스 성장(1,338만TEU, 2.1%↓)을 기록하며 2위를, 선전항(954만TEU, 6.6%↑)은 3위를 기록
- Ningbo-Zhoushan항은 10위권 항만 중 유일하게 두자리 증가세(12.1%, 879만TEU)를 기록하며 4위를 유지하였고, 홍콩항(836만TEU, 9.4%↓)은 감소세가 심화되며 5위를 기록했다.
- 부산항은 6.4%의 증가율*을 보이며 811만TEU를 처리하여 6위를 유지하였다.

* 세계 10대 항만 중 Ningbo-Zhoushan항(12.1%), 선전항(6.6%)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

《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》

(단위 : 천TEU, %)

순위		항 만	'14년	'14.5월	'14.1~5월	'15.5월	'15.1~5월	전년대비	
'15.5월	'14년							동월	누계
합 계			210,997	17,905	84,698	17,987	87,135	0.5	2.9
1	1	상하이(中)	35,285	3,000	14,188	3,150	14,942	5.0	5.3
2	2	싱가포르	33,869	2,943	13,669	2,623	13,381	△ 10.9	△ 2.1
3	3	선 전(中)	24,037	1,860	8,943	1,928	9,537	3.7	6.6
4	5	닝보저우산(中)	19,450	1,681	7,845	1,832	8,792	9.0	12.1
5	4	홍 콩(中)	22,226	1,989	9,227	1,737	8,359	△ 12.7	△ 9.4
6	6	부 산	18,683	1,583	7,622	1,641	8,109	3.7	6.4
7	7	칭다오(中)	16,624	1,380	6,979	1,413	7,099	2.4	1.7
8	8	광저우(中)	16,160	1,352	6,349	1,477	6,701	9.2	5.5
9	9	텐 진(中)	14,050	1,240	5,647	1,300	5,946	4.8	5.3
10	10	카오슝	10,593	877	4,229	886	4,269	1.0	0.9
중국계(홍콩 포함)			147,832	12,502	59,178	12,837	61,376	2.7	3.7

* 항만당국 홈페이지 참조(싱가포르 및 홍콩은 잠정치이므로 변동 가능)

** '14년 처리실적 9위인 두바이항(15,249천TEU)은 월별 실적 미발표에 따라 순위 집계에서 제외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항만
운영과 김세희 사무관(☎ 044-200-5774), 항만물류기획과 김정화 사무관
(☎ 044-200-57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